

이명헌 해병특검, 법률 검토 시작... “尹 대면수사 원칙”

특검보 회의서 혐의 등 수사 방향 밀그림... 이번주 사무실 입주 이종섭 전 국방도 수사... 수사 중요도 따라 내란 조사 후尹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22일 오후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상 ‘뒷선’ 수사에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시·보고와 묵인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조사가 이뤄진다. 이 사안 역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의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몰리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이 된다면 그쪽이 먼저 되겠다”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니까 범죄의 중간 것으로는 내란이 훨씬 중하지 않나. 중한 범죄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의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으로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갖춰지게 되면 현판식도 하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예산은 예비비이고, 예비비를 쓰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며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요일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이후 예산을 갖고 입주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울고검을 사무실로 쓰는 내란특검 등과 달리 민간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임대료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해 사무실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 않나. 20일 이내에 다 출범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절차적 문제로 사건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지 모르는 우려 요소를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통한 관련자 혐의 확인뿐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실제적, 절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한 후 수사 방향 등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헌 특검은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절차적 문제로 사건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지 모르는 우려 요소를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통한 관련자 혐의 확인뿐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실제적, 절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한 후 수사 방향 등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헌 특검은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절차적 문제로 사건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지 모르는 우려 요소를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통한 관련자 혐의 확인뿐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실제적, 절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한 후 수사 방향 등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특검도 ‘속도’

다음주 사무실 입주... 특별수사관 채용도 조만간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1일까지 새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 특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입주는 다음달 1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특검 사무실은 이 건물 13층에 마련된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앞서 사무실 준비와 인력 충원 등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검사 파견 요청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중인 특별수사관 채용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서 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준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검사 파견 요청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중인 특별수사관 채용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서 민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정기획위, 언론과 소통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운영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설계자 될 것’

문금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입법·예산·민생법 야당과 대화”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에 최근 선임된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2일 “국민과 국회를 잇는 교량으로서 당의 뜻을 국민께 전하고 국민 뜻에 당에 전하는 소통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 탄생은 ‘민생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원내 대변인으로서 단지 당 입장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정당성과 방향성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의 설계자’가 되겠다”며 “당과 국민,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 시대를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청년층의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농어촌 공동화, 돌봄의 공백 등 민생 전선 곳곳이 위기가”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원내대변인으로서 회의실 중심의 메시지를 넘어서, 시장과 거리, 청년의 삶터, 어르신들의 쉼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생한 민심을 당에 전달하겠다”며 “동시에 민주당이 준비한 정책 해법과 입법 과제를 국민께 명확히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여당이 된다는 것은 권한만큼 책임을 진다

는 뜻이다. 특히 국회는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의 장”이라면서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경쟁자’로서 야당과 마주하기보다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꼽았다.

그는 “야당과 협치는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국민은 여야 간 끝없는 대립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가 아닌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언어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현안, 예산 심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등 국회의 모든 과정에서 야당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설득과 상호 존중을 통해 ‘싸우는 정치’가 아닌 ‘일하는 국회’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 오늘尹 재판부터 공소 유지

김용현, 추가 기소 구속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검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특검이 첫 공소 유지에 나서면서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쿠엔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린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해 특검 파견과 함께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건 이첩과 해당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다. 다만 조 특검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황에서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조 특검팀의 첫 시합대가 될 전망이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